

### “좋은 일자리 위해 노·사가 신규채용 확대 협력해야”

30일, 3차 중앙교섭...질의응답 방식 진행, 사측 26개 질의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 30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대강당에서 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번 교섭은 금속노조 주관으로 사용자 측 질의에 노조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사는

3차 중앙교섭과 4차 중앙교섭 두 차례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지난 2차 때 조합에서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질의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라며 “올해 협의회에서 다뤄야 할 요구안이 통일 요구안 2개, 중앙교섭 요구안 3개 이렇게 5개이다. 질의에 대한 설명을 귀담아듣고 제시안 마련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주째 전국 현장순회를 다니고 있다. 현장순회에서 조합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올해 중앙교섭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바람도 많다”라며 “오늘 사측 질의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내용이 무겁지만 또 그에 관심도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3차 교섭을 통해 사측 교섭위원들도 금속노조가 제시한 요구안 내용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통일요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앙교섭 요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내용을 묶어 질의 했다. 사측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맡았다.

박근형 회장은 “조합이 지금 제출하신 이 두 개 요구 모두 사용자 역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이고 사용자 역시 정부에

요구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사용자들도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 거는 사실이다”라며 “다만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산업 전환과 관련된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감소, 이주노동자 등 다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사측의 첫 질문은 통일요구 1항 관련 ‘좋은 일자리’ 정의에 대한 질문이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영어로 디센트 워크(decent work)를 언급하면서 좋은 일자리 지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이후에 기술 발전과 세계화

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심화되고 일자리 질이 악화됐다. 그런 사회적 조건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됐다”라며 “이걸 그대로 두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점점 커졌고 그래서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확보하는 지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향을 금속산업협약에도 담아내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상민 실장은 “다만 ‘좋은 일자리’가 일자리 질의 악화를 막자는 지향만 담긴 추상적인 개념만은 아니다”라며 “금속 노사는 이미 좋은 일자리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펼쳐왔고 성과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금속 노사가 지향해 온 좋은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하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상민 실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중앙교섭 요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에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자는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측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회원사 중 채용 예정 계획이 있는 기업은 45%에 불과하다. 이는 금속



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려운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유치가 아닌 ‘창출’은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김상민 실장은 “노조도 무작정 몇 명 또는 몇 퍼센트 늘리라는 식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참고로 과거 2010년에는 당기순이익 증가 비율만큼 신규채용 하라는 중앙교섭 요구를 내기도 했었다”라며 “올해 요구는 노사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하는 고민을 담았다. 급변하는 산업전환기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많은 ‘일거리’가 생기고 이런 일거리들이 ‘일자리’로 이어진다. 산업전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거리를 발굴하고 새롭게 발굴된 일거리를 수행할 수 있는 노동자를 채용해야 한다. 그래야 전환의 흐름에 안정적으로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 요구안 2항‘자연 감소된 인원의 신규 채용’과 관련된 질문

이다. 박근형 회장은 “결국은 여성 및 퇴직자 감소분이 근간이라고 보면 결국은 일자리라는 숫자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총고용 보장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취지의 어떤 요구 사항인가”라고 질의했다.

김상민 실장은 “2항과 3항을 묶어서 결론적으로 총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로 이해한 것 같은데, 노조 요구를 오해했다. 2항은 총고용 보장 취지고, 3항은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측의 ‘여성 지원자가 없거나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절대적인 수를 맞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 여성 퇴직자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여성으로 채용 하라는 의미다”라며 “특정 직무의 성역할이 고정될 위험까지 고려해 그렇게 해석되지 않도록 성안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통일요구안 3항 관련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직무를 합동으로 조사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상민 실장은 “사업장마다 조건이 다르고, 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시기나 항목을 제시하긴 어렵다”라며 “상당수 사업장 현장의 노사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으며,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협력사 대상으로 실시하는 탄소중립 교육 컨설팅 사업도 있고, 정부도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노조가 반대할 생각은 없다. 이 같은 사업들이 요구안 문구대로 필요한 직무를 함께 조사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사의 노력과 긴밀히 연동되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통일 요구안 5항 관련 ‘산별협약에는 이미 29세 이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일자리 배분에 대한 세대 갈등 발생 우려’에 대한 질문이다. 김상민 실장은 “통일요구에는 고령자 채용을 명문화한 내용이 없다. 노사공동선언에 언급된 청년, 고령, 여성 일자리 늘리는 방향에 대한 질문인 것 같다”라며 “노조의 기본입장은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 형태로 비화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전했다.

중앙교섭 요구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과 관련해 “통일요구인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에서 ‘양질의 일자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다.

김상민 실장은 “통일요구 1항은 노사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항으로 실제 협약을 체결한 노사만 구속하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다 높은 목표로서 ‘좋은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다”라며 “노사 공동선언은 청년, 고령, 여성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산업공동화와 자본해외유출에 대한 ‘국내 일자리’ 보호 등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사공동선언은 통일요구안 41조를 수정해 신설 조항으로 노사공동선언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면 되는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상민 실장은 “통일요구는 단협으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회사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사공동선언은 문장의 주어가 모두 ‘노사’로 돼 있는 게 결정적 차이”라며 “선언은 협약으로 회사에 이행 부담을 주기는 어렵지만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로 △산업전환에서의 노동자 보호 대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정책 △대정부 요구 등을 언급하고자 했다. 따라서 통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합이 산업재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중요시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올해 요구안이 예년과 같은 측면이라고 이해된다면, 결국은 청년, 여성, 이주, 사내하청까지 노측이 생각하는 총고용 보장으로 묶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산업재편되면 기업의 고민과 입장도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 산업재편에 사용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담길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생긴다. 이후 고령자 급증, 이주노동자가 다수가 되는 현실 인식 속에 노사가 충분히 머리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라며 “노사가 결속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요구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있는 중앙교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4차 중앙교섭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5월 7일 부산 선원센터에서 연다.